

기업을 부르는 지역사회 주도 도시재생

지방분권, 선진현장을 가다

<5> 일본 요코하마

1947년 개헌 지방분권 보장 지역 법인 '미나토미라이21' 기반시설 등 대형국책 주도 자연 조화 개발 도심이 관광지

요코하마의 성장은 '미나토미라이21'이라는 도시재생 사업의 성공이 비결이었다. 그리고 이 사업은 지방분권을 뒷받침하는 헌법이 원동력이 돼 가능했다.

◇도시의 운명을 바꾼 도시재생

요코하마의 심장인 '미나토미라이21' 지구에 들어서면 도시적 세련미에 감탄하게 된다. 일본 두 번째 초고층 빌딩 요코하마 랜드마크 타워(296m)를 비롯해 수십층의 고층빌딩들이 조화롭게 해안 도시를 채우고 있다. 비즈니스 타워부터 호텔, 쇼핑몰, 공연장은 물론 '코스모월드'라는 대형 놀이동산까지 들어서 있다.

놀라운 건 이들의 조화다. 바다에 가까울수록 건물이 낮고 하얀 외벽을 가진 곳이 많다. 바다와 멀어질수록 건물은 높고 색은 짙어진다. 그 덕에 도심 전체가 하나의 스카이라인을 그리고 있고, 통일성을 갖춘 건물들이 도시에 세련미를 더하고 있다.

여기에 곳곳이 녹지다. 건물 간격이 넓고, 곳곳에 공원과 쉼터가 있다. 1.86km의 구역 내 건물은 47%에 불과하다. 공원 등 녹지의 비중이 무려 25%이다. 대도시 최고의 금싸라기 땅에 이렇게 녹지가 많은 경우는 찾아보기 힘들다.

이곳은 원래 조선소가 있던 공업단지였다. 일본 조선업의 위기가 본격적으로 감



일본에서 두번째로 높은 '요코하마 랜드마크 타워'의 전망대에서 내려다본 요코하마 '미나토미라이21' 지구의 풍경. 지역이 자율성을 갖고 추진한 이 도시재생 사업을 통해 요코하마는 성장하는 도시의 발판을 만들었다.

지되던 1983년 미쓰비시 조선소를 옮기는데 정부와 지역사회가 합의 이뤄져 본격적인 재생사업이 시작됐다. 지역 주민의 의견을 최우선시해 난개발을 피하고 지속 가능성이 보장된 도시를 만들겠다는 게 사업의 핵심이었다.

결과는 매우 성공적이다. 현재 입주기업은 1780여 개에 달하고 고용인원도 10만 명을 훌쩍 넘는다. 2010년부터 입주기업은 400개가량, 고용인원 3만 명가량 늘었다. 사업주체 중 한 곳인 법인 '미나토미라이21'의 우르시 미나 위원은 "연 관광객도 7700만 명이다. 지금도 대규모 거리구역 개발이 이뤄지고 있다"며 "지역에 필요한 것을 제일 잘 아는 지역 시민의 뜻이 반영돼 가능한 성장이다"고 말했다.

◇지역 스스로 이뤄낸 변형

미나토미라이21의 성공비결은 '조화로 온 개발'과 이 기초를 꾸준히 유지해온 '지속성'이다. 지역사회가 사업의 주체가 되었기 때문에 가능했던 일이다. 1947년 신

헌법이 제정되면서 현대적 형태를 갖춘 지방자치를 바탕으로 지역 사회가 직접 꾸리는 도시를 그려나갈 수 있었던 것이다. 헌법을 토대로 한 지방분권추진법의 시행으로, 국방 같은 전국적 사안이 아니라면 지역의 일을 지역에서 주체적으로 처리한다는 원칙이 확고히 서면서 맺은 결실이라고 볼 수 있다.

미나토미라이21 일대의 개발 논의는 1960년대부터 시작됐다. 당시 정부안은 쇠퇴하는 공업지역을 빌딩 숲으로 대체하는 것이었고, 지역 사회는 반대했다. 그러다 1980년대 요코하마시와 지역 시민들이 주체적으로 미나토미라이21 개발 계획을 세워 사업이 현실화했다. 그 덕에 철저한 지역사회 중심으로 도심재생이 진행됐다. 건물 하나하나의 색깔도 시민의 의견을 구해 결정했고, '미래의 항구'라는 뜻의 사업 명칭도 주민공모로 얻었다.

미나토미라이21은 국책프로젝트이기 때문에 요코하마시 그리고 토지소유자·지

역 기업 등 민간 차원에서 출자한 '요코하마 미나토미라이21(주)'과 함께 중앙정부도 주체로 참여하고 있다.

하지만, 전체사업 관리 및 조정 업무를 비롯 기반시설 건설까지 큰 틀을 철저히 시가 맡고 있다. 상업시설 등의 전반적인 관리는 요코하마 미나토미라이21(주)가 담당한다. 정부의 역할은 공공청사 건설 같은 것에 머물러 있다. 운영자금도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지역 민간사업자들이 내는 운영비, 자체 수익사업으로 각각 3분의 1씩 충당된다. 전적으로 지역사회 중심으로 움직이는 구조다.

부산시 박동석 기획담당관은 "미나토미라이21은 자율권을 확보한 지역사회의 가능성을 보여주는 사례이다"며 "지역의 대형국책 사업들이 중앙행정의 무관심 또는 간섭으로 갈팡질팡하는 경우가 많은 국내와 비교하면 굉장히 부러운 일"이라고 평가했다.

요코하마 글·사진=부산일보 김백상 기자

요코하마 시민들 "녹지세 아깝지 않아요"

요코하마 시민들의 녹지에 대한 사랑은 남다르다. 심지어 녹지세까지 내고 있다. 지방분권 개헌이 이뤄지더라도 시민으로서 책임감과 의무를 다해야 공동체에 뭔가를 바랄 수 있다는 걸 보여주는 사례다.

2008년 시는 탄소배출을 줄이기 위한 '탈탄소화 행동방침'을 정했고, 공공주차장 등을 공원으로 정비하는 '입체도시공원제도'도 도입했다.

문제는 재원이었다. 현실적인 해결책은 증세뿐이었다. 그해 시는 '녹지에 관한 시

민 인식조사'를 실시한 뒤 녹지조례를 만들었다. 개인에게 연간 900엔, 법인엔 평균 세율에 9%를 추가 가세한다는 내용이였다. 별다른 조세저항은 없었고, 시는 그동안 연간 315억 원 가량의 녹지세를 걷었다. 그 덕에 녹지와 농지의 보존 및 확충을 위한 56개 테마 사업이 진행됐다. 애초 녹지세는 2013년 전후로 끝나는 한시적 증세였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공감대가 커져 2018년까지 증세 기간이 연장됐다.

요코하마=김백상 기자 k103@busan.com



요코하마 시내 곳곳에서 녹지와 시민 휴식 공간을 쉽게 만날 수 있다.



박종구의 중국 인물 이야기



<초당대 총장>

여황제 꿈꾼 태평공주

태평공주(太平公主, 665?~713)는 고종과 측천무후의 막내딸로 태어났다. 장간지의 쿠데타에 가담해 당 왕조 부활에 기여했다. 말년에 여황제를 꿈꾸다가 죽임을 당했다.

8살 때 측천의 생모 양씨가 죽자 복을 기원하는 의미로 태평공주로 불리기 시작했다. 측천의 성격과 기질을 빼닮았다. 681년 고종의 외조카 실소와 혼인했는데 그가 황실의 일원이 이 총의 역모에 연루돼 옥사하자 690년 무유기와 재혼하였다. 690년 측천이 무주 왕조를 세우자 정사에 관여했다. 그녀는 장역지와 장장종 형제를 천거해 궁궐 안에 들어와 시종들게 하였고, 나이가 어리고 자태와 얼굴이 아름다웠으며 음악을 잘해 측천의 총애

였다. 예종도 재상이 정사를 보고하면 "태평공주와 의논했는가"라고 물었다. 예종으로서의 뒤를 이을 황태자 선정이 지대한 과제였다. 장남 이성기와 셋째 아들 이용기 중 한명을 택해야 했다. 이성기는 정국의 흐름을 읽고 태자 지위를 동생에게 양보했다. "나라가 평안할 때는 장자를 세워야 하지만 나라가 어려울 때는 공손이 있는 자를 세워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용기가 황태자가 되자 태평공주의 권력 행태가 시작되었다. 양측은 조정 대신들을 자신의 편으로 끌어들이는데 심혈을 기울였다. 그녀는 "머지않아 황태자가 폐립될 것이다"라는 소문을 퍼뜨렸다. 측근으로는 두회정과 승려 해법과 같은 모사꾼이 많았다. 두회정은 위황후의 유모를 치료 삼은 인물로 전형적인 간신배였다. 이용기

무측천 막내딸...반역 피하다 피살

를 입었다. 측천 내준신에게 밋보여 여러 친왕들과 함께 모반죄로 무고를 당했다. 절제절명의 위기였는데 측천이 길육의 간언을 받아들여 내준신을 기시(藥市)로 독함으로써 위기를 벗어났다.

705년 장간지의 쿠데타로 중종이 황제가 되자 본격적으로 정치에 뛰어들었다. 황제는 그녀에게 진국태평공주라는 칭호를 덧붙여 주었다. 식욕도 늘어나 1만호가 되었다. 중종비 위황후는 딸 안락공주 처가인 무삼사 집안과 결탁해 조정을 쥐락펴락했다. 조정은 위황후와 무삼사 세력과 상황 이단과 태평공주 세력으로 양분되었다. 710년 6월 위황후와 안락공주가 신릉전에서 중종을 독살했다. 온왕 이종무가 즉위하고 위황후는 황태후로 존송되었다. 위황후를 황제로 만들기 위해 안락공주와 측근 종조객이 음모를 꾸미고, 측천의 아들 이용기는 고모인 태평공주와 상의해 선제공격키로 결정했다. 아들 설송간을 보내 이용기, 종소경, 유유구, 갈복순 등과 함께 위씨 토벌작전에 나섰다. 이용기 일파 작전이 성공해 위황후는 궁중에서 죽임을 당하고 안락공주는 집에 틀어박힌 병사들에게 살해당했다. 상황 이단이 다시 황제가 되었다.

예종의 복위에 그녀는 주역을 맡았다. 그녀가 임결하지 않으면 재상이 그녀의 집에 찾아가 조정 일을 상의하

측은 태평공주를 동도 낙양으로 옮기도록 예종에게 건의했으나 유유부단한 예종은 결단을 내리지 못했다. 조정의 혼란이 더 심해졌다. 결국 712년 예종은 이용기에게 양위하고 자신은 상왕이 되었다. 그러나 재상급 7명 가운데 5명이 태평공주파일 정도로 양측은 호각지세였다. 두회정, 소지충, 잠희, 최식, 육상선이 그들이다.

그녀는 황제를 폐하려고 했다. 형주 자사 최일용이 입궐해 아뢰기를 "태평공주가 반역을 꾀한지 오래입니다. 지금 조서 하나만 내리면 누가 감히 따르지 않겠습니까? 만에 하나 간악한 사람들이 뜻을 얻게 되면 그것을 후회할 틈 따르겠습니까?" 712년 3월 중신 위지교가 공주의 쿠데타 계획을 알렸다. 황제는 마침내 그들을 죽이기로 결단하였다. 상원해, 이자, 소지충, 잠희를 목베었다. 두회정은 달아나 도망속으로 들어가 스스로 목매 죽었다. 그 시체를 참수하고 성을 독정했다. 아들 설송간을 보내 이용기, 종소경, 유유구, 갈복순 등과 함께 위씨 토벌작전에 나섰다. 이용기 일파 작전이 성공해 위황후는 궁중에서 죽임을 당하고 안락공주는 집에 틀어박힌 병사들에게 살해당했다. 상황 이단이 다시 황제가 되었다.

(주) 송도건설

SONGDO

광주광역시 서구 경영로 17번길 9 거승빌딩
Tel. (062) 382-8879

분양 문의

- 소촌동 | 24py ☎(062) 610-9226
- 주월동 | 18py ☎(062) 652-5600

전국사업지

- 서울특별시 | 잠실동
- 부산광역시 | 광안동
- 제주특별자치도 | 노형동
- 경기도 안성시 | 중리동
- 전남 목포시 | 옥암동
- 전남 영암군 | 삼호읍
- 전남 화순군 | 화순읍
- 전남 담양군 | 대전면
- 전북 완주군 | 이서면

가족회사

(주)금호주택 / (주)금호에너지 / (주)송도 / (유)송산

광주사업지

- 동 구 | 지산동, 소태동
- 서 구 | 금호동, 풍암동, 차평동, 농성동
- 남 구 | 주월동
- 북 구 | 신유동, 연제동, 운암동
- 광산구 | 수안동, 신창동, 운남동, 월계동, 산월동, 소촌동, 송정동, 도산동